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리 홍양은 재배의 적지
 ● 홍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대인원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전북 부안 내소사의 산수유꽃.



◇전남 진도 쌍계사의 동백꽃.



◇강남 합천 통도사의 매화.

선홍빛 동백...이슬기린 벚꽃터널...한껏 물오른 개나리...

산사의 봄 "이곳이 법계로다"

봄이다. 따뜻한 봄바람 따라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그 꽃들을 만나러 사람들은 길을 떠난다. 이반 봄에는 되도록이면 가까운 사찰에서 봄꽃들과 눈인사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사찰의 봄은 속세와는 확연히 다르다. 소리없이 번지는 봄기운 속에 은은한 운치가 배어 있는 곳.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혹은 사찰을 둘러싼 뒷산까지 꽃, 나무, 풀들이 오가는 이를 반긴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해빙고 나와 아리따운 꽃봉우리를 맺고, 결국 그 환한 미소를 터뜨리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자연의 신비와 공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활짝 핀 봄꽃들 뿐이라, 화려한 꽃들 사이로 얼굴을 비집고 나온 이름 모를 풀과 새들의 노래, 또 코 끝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의 살랑임도 우리들의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옥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미당 서경주 시인의 절창으로 더욱 유명해진 고창 선운사의 동백은, 예로부터 아름답기로 그 이름이 자자하여 수많은 시인 묵객과 넋을 사로잡았다. 선운사의 동백은 3월 말~4월 중순에 만개하는데, 선운사를 감싼 도솔산의 종곡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이 도솔산(선운산이라고도 한다)은 우거진 숲과 절묘한 바위 때문에 동산으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선운사 입구 오른쪽 비탈에서부터 절 뒤쪽까지 약 30m 너비로 군락을 이룬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들은 수령이 500년 가량 되며, 저마다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린다. 천하를 물들일 듯 당당한 기세로 위풍을 불 내던 동백은 4월 말경이면 지는데, 꽃송이째 똑똑 떨어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의 극한을 느끼게 한다.

전남 장진군 도암면 민덕산에 자리한 백련사 동백꽃도 유명하다. 4월 초부터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붉다 붉은 선홍색으로 꽃잎을 활짝 연다.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절 앞의 숲도 아름답지만 백련사 사적비 조급 서쪽에 있는 형호토성 너머로 펼쳐지는 동백숲은 더욱 장관이다.

봄꽃이 화사한 절길 하면 가장 먼저 쌍계사 벚꽃길이 떠오른다. 10리 에 이른다는 쌍계사 벚꽃길은 화계장에서부터 쌍계사 입구까지 이어져 있다. 이 길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화계 면장을 지낸 김진호씨가 쌍계사 가는 좁더란 길을 넓히면서 벚꽃모듬을 일본에서 구해 와 심은 데서 부터 비롯됐다. 한때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쌍계사와 더불어 화계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쌍계사는 차(茶)로도 유명한데, 화계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벚꽃길 곁에도 '차시배지'가 있다. 이곳의 차는 신라 김대

가볼만한 봄꽃 피는 절

사찰명	꽃피는 시기	주요 꽃	연락처
실곡암	4월 중순~하순	벚꽃	02-914-6000
화계사	4월초	진달래	02-902-2693
봉은사	4월초~말	산수유, 목련, 개나리	02-545-1448
정광사	4월 중순~말	벚꽃	081-244-1036
봉선사	4월 초~중순	진달래, 개나리	0346-527-1061
쌍계사	4월 중순	벚꽃, 진달래	0543-426-2221
법흥사	4월 중순~말	벚꽃, 진달래, 개나리	0873-374-9177
동학사	4월 중순~말	벚꽃	042-625-3002
미곡사	4월 초~중순	산벚꽃	0416-641-6221
통도사	3월 말~4월 초	매화, 산수유	0623-382-7182
쌍계사	4월 초~중순	벚꽃	0666-663-7019
부석사	4월 중순	사과꽃	0572-630-9258
영일암	4월 중순~말	동백	0662-644-4742
송림사	4월 초~중순	벚꽃	0652-241-7811
화엄사	3월말~4월 중순	벚꽃, 산수유	0664-792-7000
실상사	4월말~5월 초	벚꽃	0671-636-3031
탑 시	4월 중순~말	벚꽃	0666-430-3313
광림사	4월 초~중순	살구꽃	0661-752-6390
선암사	4월 초~5월초	벚꽃, 목련	0661-754-6963
백련사	4월 초	동백꽃	0638-432-0837
선운사	3월말~4월 중순	동백꽃	0677-663-3450

림이 당나라에서 차나무씨를 가져와 처음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진감 선사(쌍계사와 화계 부근에 차밭을 조성함)로써, 오늘날까지 봄밭을 가득 담은 싱그러운 차밭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벚꽃과 차밭이 어우러진 절경취를 음미하며 천천히 걸노리면 어느덧 쌍계사에 도착하게 된다.

조계산 선암사도 봄 정취를 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절이다. 조계산이 신록으로 새옷을 갈아입을 즈음, 선암사 곳곳에서 벚꽃과 목련, 모란, 영두, 철쭉, 모과, 영산홍 등 갖가지 꽃들이 차례로 피어난다. 아름다운 꽃들과 고공스런 선암사 전각이 어우러져 봄의 향연을 이룬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영주 부석사에는 사과꽃 향기가 독특하다. 일주문에서부터 부석사에 이르는 길에 핀 사과꽃은 4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은은한 사과꽃 향기가 지나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바라보는 먼 산의 풍경에서도 봄 빛 머금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맘껏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봄 경치가 수려하다는 마곡사는 특히 봄이면 산벚꽃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한편 북한산 실곡암에서는 22~23일 산벚꽃축제를 열 예정이며, 미이산 탐사도 21~25일 벚꽃길 걷기 축제를 연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봄꽃 이야기

▲산수유=산수유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개나리, 벚꽃보다도 일찍 꽃을 피운다. 매화나 동백이 산수유보다 더 일찍 피지만 대개 남쪽에서 자라고, 또 봄보다는 아직 추운 겨울이라는 느낌을 전하는데 반해 산수유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준다. 산수유는 충흥나무과에 속하는 키작은 교목이다. 경기도 광릉지역에 주로 자생하며, 전국의 산야에 널리 퍼져있다. 3~4월에 꽃을 피우며, 8~9월에는 긴 타원형의 붉은 열매를 맺는데, 한방에서 다뇨·신경쇠약 등을 다스리는 약재로 쓴다.
 ▲개나리=개나리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같은 물푸레나무로,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이다. 남쪽지방은 3월 말부터, 서울 근교는 4월초부터 노란빛깔의 꽃이 일보다 먼저 피고, 열매는 8월에 맺는다. 개나리는 꽃이 아름답고 병충해와 추위에 강해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중요한 관상수로서 오래전부터 공원, 길가 등에 심어져 왔다.
 ▲동백꽃=동백은 따뜻한 해변 산지에서 잘 자라는 상록 교목이다. 남부해안지역에서는 2~3월에, 중부지방에서는 3~4월에 꽃망울을 터뜨린다. 아생종은 붉은색, 흰색, 노란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꽃을 선보인다.
 ▲진달래=진달래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

리나라 및 민주 지방의 산간 양지 바른 곳에 자란다. 3월~4월에 일보다 먼저 꽃이 피고, 자주빛이 도는 붉은색 진달래와 흰꽃이 피는 흰진달래, 달진달래, 향진달래, 반들진달래, 한라산 진달래, 산진달래 등이 있다.
 ▲벚꽃=우리가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만 알고 있는 벚꽃은 원래 우리나라의 봄을 어느 꽃보다도 절절하게 알려주는 토종 우리 꽃이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암벚나무는 대표적인 우리 토종 벚나무다. 장미과에 속하는 벚나무는 산벚나무, 가는잎벚나무, 개벚나무, 진달래나무, 털벚나무 등 품종도 많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월 경에, 약 4월~5월 정도 피었다가 진다.



◇강남 진해시 성흥사 앞마당에 만개한 벚꽃. 석탑과 더불어 아름다운 봄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